

6·25 참전자 혹은 타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론

선민서*

요약

프로이트는 대상의 죽음만이 아니라 대상의 타락 역시 '대상상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6·25 참전자들은 누군가를 살해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타락자의 곁에서, 타락 이전의 그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 분단문학은 지난한 대상상실의 서사로도 독해될 수 있다.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친형이 살인행위에 가담했는지 모를 타락자로 변모해버린 동생의 이야기다. 동생의 병리적 고통에서 6·25와 분단이 야기한 고통의 보편적인 형태가 드러난다. 모든 전쟁은 가까운 지인을 타락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병신과 머저리」에서 동생인 '나'는 형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운순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형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한다. 상실된 대상인 형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지 못한 채, 형에 대한 애증 병존의 양가감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차질을 겪으며, 비정상적 행동을 일삼는다. '나'는 자신의 고통에 환부가 없다고 말하지만, '나'의 고통에는 대상상실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헤인은 6·25전상자인 형과 '나'를 비교하며 '나'에게는 고통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는 6·25 참전자를 영웅화하며 그들의 타락상에 대한 증언을 은폐시켰던 당대 담론과 다르지 않다.

'나'의 멜랑콜리의 근원에는 참전자를 타락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영웅시하는 사회 담론이 있었다. 참전자를 영웅화하는 분위기는 1964년의 베트남전쟁 파병 이후 가속화되었다. 1966년작 「병신과 머저리」는 1960년대 중반의 군사주의 분위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기 속에서 태동했다. 무수한 타락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고통은 징후와 증상으로 드러난다. 전쟁 트라우마는 참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을 목인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들에게도 엄연히 존재했다. 군사주의가 초래한 참전자 영웅화를 경계하며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참전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시화했다.

주제어: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슬픔과 우울증』, 전쟁 트라우마, 6·25, 참전자 영웅화, 군사주의, 분단문학

목차

1. 6·25와 분단, 그리고 분단문학
2. 전쟁 트라우마와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증」
3. 참전자 형의 타락과 동생의 멜랑콜리
4. 가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에 대한 증언

1. 6·25와 분단, 그리고 분단문학

6·25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종전으로 귀결되지 못했다. 분단체제로 고착된 6·25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나 그 기억을 전승받은 세대에게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쟁의 결과 수많은 실향민, 피난민,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산가족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생애를 마감하기도 했다. 전사자의 가족들이 유가족이 되어 평생을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일도 빈번했다. 1950년대 이후 한국문학사에 6·25전쟁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6·25 이후의 문학은 필연적으로 분단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방향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전후세대 작가들의 문학에 6·25전쟁은 큰 영향을 미쳤다. 김승옥, 이문구, 윤홍길 등의 전후 작가들은 6·25전쟁을 각기 다른 양상으로 서사화했다.¹⁾ 이청준 역시 6·25전쟁의 외상적 체험을 그의 소설 작품들에서 다루었다.²⁾ 특히 초기작 「

병신과 머저리』³⁾에는 6·25로 인한 전쟁 트라우마가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6·25 발발 16년 후에 쓰였다. 6·25 참전용사인 형과 그의 동생의 서사는 전쟁 트라우마를 재현한다. 이 소설에서 형이 전쟁에 참전했으므로 그가 더 고통 받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병신과 머저리』는 참전용사인 형이 아니라 동생이 받는 고통의 문제에 주목한다. 전장터에서 폭력을 경험한 형보다도 더 고통받는 인물인 동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환부 없는 고통’을 가졌다고 부르짖는 이 등장인물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병신과 머저리』가 요청하는 것은 ‘환부 없는 고통’을 지닌 등장인물 ‘나’가 고통받는 이유를 섬세하게 독해해내는 일이다. 『병신과 머저리』에서 동생이 고통받는 원인은 다각도에서 성찰되어 왔다. 먼저 동생의 고통은 예술가로서의 창작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⁴⁾ 그러나 대중적으로 동생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동생이 추상화가이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도 존재한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생의 고통은 전후세대의 고통만을 표상하

1) 전전(戰前)세대에 포함되었던 염상섭, 김동리, 황순원의 경우나 전중(戰中)세대에 해당하는 하근찬, 손창섭, 그리고 전후(前後)세대에 포함되는 서기원, 하근찬, 이호철 등은 6·25전쟁을 서사화함으로써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증언하고자 했다. (김병익, 『6·25사변, 한국전쟁, 분단체제, 그리고……그 역사에 대한 우리 소설의 관점들』, 『본질과 현상』 37, 본질과 현상사, 2014, 199면.)

2) 『병신과 머저리』(1966), 『소문의 벽』(1971), 『개백정』(1985), 『숨은 손가락』(1985), 『가해자의 얼굴』(1992), 『흰옷』(1992) 등의 단편과 장편소설이 그 예에 해당한다. (조구호, 『이청준 소설 연구—전쟁의 상처와 분단극복을 중심으로』, 『東洋學』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63면.)

3)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창작과 비평』 1966년 가을호(제1권 제4호), 문우출판사, 1966.10. 이하 이 소설에서 인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면수만을 밝히겠다.

4) 이상우, 『죄의식의 표출과 예술가의 고통—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하여』, 『국제어문』 10, 국제어문학회, 1989, 153면.

5) 현순영,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대중적 해석 검토』, 『한국언어문학』 105, 한국언

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김일병 사건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실연이 ‘나’가 고통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분석할 수도 있다.⁶⁾ 세대론적 맥락을 고려할 때 ‘나의 환부 없는 고통은 스스로 역사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역사적 사건에 의해 선택 당하기만 했던 4·19세대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⁷⁾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현상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요청한다.⁸⁾ 그의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법은 그의 소설을 정치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이다. 상처가 없다는 말은 병리적 증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병신과 머저리』에서 동생이 고통 받는 원인을 상징적 세계로의 진입에서 발생하는 입사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라캉의 시선과 응시 개념 구분에 따르면, 시선은 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하지만 응시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한다. 동생은 무의식적 차원의 응시로 인해 고통 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오관모의 폭력을 방치하는 형의 시선이다. 정신분석학적 의미에 따른 아버지의 시선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한 동생이 공포나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들은 그의 소설에 나타난 고통의 문제를 보편적 차원에서 조명한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독법을 따를 때 누락되기 쉬운 것은 이 소설의

어문학회, 2018, 162-163면 참조.

6) 서영채, 『가해자의 자리를 향한 열망과 죄책감—『병신과 머저리』가 한국전쟁을 재현하는 방식』,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442면 참조.

7)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90면.

8)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제시한 책으로는 ‘이승준, 『이청준 소설 연구—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와 ‘김종주, 『이청준과 라캉』, 인간사랑, 2011.’이 있다. 전자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후자는 『이어도』에 주목하고 있다.

9) 김효은, 『경계 세계에 놓인 불안한 존재들의 환부의 의미—이청준의 『퇴원』, 『병신과 머저리』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12(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116-118면 참조.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의미다.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동생의 고통은 그 자체로 보편성을 지니는 한편, 1950년대의 참전자 영웅화 실태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강화된 군사주의 문화를 비판하는 특수성을 가지기도 한다. 『병신과 머저리』는 베트남전쟁 파병 이후 군사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1960년대 중반의 시대상에 대한 비판으로 독해될 수 있다. 1950년대의 한국전쟁이 1966년에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 월남전 파병과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우회적 탐색이 요구된다.

환부가 없다는 ‘나의 말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고통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진행된 바와 같이 ‘나에게 환부가 의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첩경이다.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병신과 머저리』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환부를 인지하고 그 발생 원인을 자가진단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를 탐색해야 한다. 본고는 지금까지 비지적(非知的) 영역으로 남겨졌던 6·25 이전의 형과 동생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참전용사가 아니었던 동생의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아픔’과(499)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군대화 문제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병신과 머저리』 해석의 결락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¹⁰⁾

2. 전쟁 트라우마와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증」

‘내가 고통받는 원인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

10) 이 소설과 관련해 제시된 동성사회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갈등의 축이 형제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할 수 있었다. (박인성, 『이청준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남성 동성사회성 연구—소거된 여성 젠더를 둘러싼 비대칭적 삼각형을 통하여』, 『현대소설연구』 7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5면 참고.)

석학을 참조할 수 있다. 『슬픔과 우울증』¹¹⁾에서 프로이트는 ‘슬픔’과 ‘우울증’을 대조적으로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슬픔’은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우울증’은 병리적인 증상이다. ‘슬픔’과 ‘우울증’은 모두 대상의 상실로부터 기인하지만, 전자가 새로운 대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진척되는 데 반해 후자는 자애심의 추락으로 귀결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슬픔을 느끼는 자는 자신이 상실한 대상을 의식적으로 인지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그 대상을 상실하게 만든 세상이 빈곤하고 공허한 것이라 여긴다. 또한 자신의 슬픔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정상적인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상실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가 상실한 것은 무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세상이 아니라 자아가 공허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비하성 발언을 하며 자기 폭로를 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 환자의 특성들은 정상적인 슬픔을 느끼고 일상을 회복하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에 프로이트는 『슬픔과 우울증』

11)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1917), 『프로이트 전집11—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3, 243-265면 참조. “Trauer und Melancholie”는 우리말본 프로이트 전집에서 『슬픔과 우울증』으로 번역되었다. ‘Trauer’는 슬픔, 비애, 애도 등으로 번역된다. ‘Melancholie’는 우울증, 멜랑콜리 등으로 번역된다. 『애도와 멜랑콜리』의 저자는 ‘Trauer’가 일반적인 슬픔과 달리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의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므로 ‘애도(哀悼)’가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미국 정신학에서 도입한 개념인 우울증과 달리 멜랑콜리는 라틴어 어원 ‘멜란콜리아’로부터 유래하며 1950년대 프랑스의 실존주의 번역사와의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 인문학적 연원을 지니는 개념이므로 ‘Melancholie’를 ‘멜랑콜리’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파워북, 2013, 8-10면 참조.) 본고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슬픔’과 ‘우울증’이 일상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이해를 선명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비애’ 역시 철학사적이고 문학사적인 함의를 지니는 용어이므로 글의 맥락에 따라 ‘Trauer’의 번역어로 ‘슬픔’과 ‘애도’와 ‘비애’를, ‘Melancholie’의 번역어로 ‘우울증’과 ‘멜랑콜리’를 혼용했다.

에서 이들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했다.

슬픔의 경우에는 현실성 검사를 거쳐 대상의 부재를 확인하고 리비도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전달되며, 리비도가 애초의 대상으로부터 이탈되고 자아가 자유로워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다른 대상에게 리비도를 투여하는 과정에 실패한 우울증 환자는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고 자기 비하와 자기 비난에 빠지며 도덕적인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스스로 사랑과 성취의 능력이 없다고까지 여기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상적 대상이 상실되거나 사랑의 대상이 배신을 하는 경우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정 대상에게 냉대를 받거나 실망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가 다른 대상에게 전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 리비도가 역으로 자아 속으로 투여된다. 그리고 자아를 포기된 대상과 동일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대상 상실이 자아 상실로 전환되고 동일시로 변형되기 '이전의 자아'와 '이후의 자아'로 자아가 분열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우울증 환자의 행태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갈등이 발생했고 그 대상을 상실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우울증 환자의 핵심적인 3가지 특징은 대상 상실, 애증 병존, 그리고 자아로의 리비도 퇴행이다. 우울증 환자가 빈번히 자기 비하와 자기 비난, 자기 멸시의 말을 내뱉지만 실상 그가 비난하려는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상실된 대상이다.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척하며 실상 상실된 대상에게 복수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실된 대상을 깨끗하게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중구속(double-bind)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애증 병존의 양가감정이 형성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대상에게 투여되어야 할 리비도가 자아로 퇴행하며 자아가 콤플렉스에 굴복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3가지 특징을 토대로 애도의 성취와 실패에 따른 주체의 상태

를 구분할 수 있다.¹²⁾ 정상적인 애도, 병리적인 애도, 멜랑콜리가 그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애도는 슬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상에 리비도를 전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주체는 기억의 과투여 과정을 거치며 고통을 받다가 리비도의 분리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 성공한다. 하지만 병리적인 애도는 이러한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 데 실패한 경우에 발생한다. 애도에 실패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상실한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과정이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경우를 멜랑콜리라 지칭할 수 있다. 리비도가 자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스스로를 상실한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모방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실된 대상을 자기자신이라고 여기는 상태가 멜랑콜리의 상태이다. 상징적 현실을 거부하고 나르시시즘의 단계로 퇴행하는 것이다. 멜랑콜리에 빠진 자는 최악의 경우에 상실된 대상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없애려는 자살 충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프로이트가 주창한 ‘슬픔’과 ‘우울증’에 관한 진단은 「병신과 머저리」를 해석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나는 ‘나의 행동들은 애도에 실패한 채 멜랑콜리에 빠져 있는 자의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3. 참전자 형의 타락과 동생의 멜랑콜리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서 6·25는 형과 동생의 관계를 변화시킨 근본적인 사건이다. 6·25 이전에 형과 동생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형의 자전적 소설에 쓰인 서술에 나타나듯이 6·25 이전의 그는 폭력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노루

12) 앞의 글, 50-54면 참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일에도 그는 “총소리를 듣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것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다고(481) 느끼고, “부질없는 호기심에 끌려 사냥을 따라나선 일을 후회”한다. 노루 사냥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는 인물이 바로 그다. 『병신과 머저리』는 이렇듯 폭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형을 잃어버린 동생의 서사다.

전쟁 이전의 형은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리라 추정된다. 실령 이상적인 형이 아니었다고 해도 최소한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나는 형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통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6·25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형이 살인자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형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실은 이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형이 전쟁 중에 살인을 범한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에도 ‘나는 그 사건의 실상에 대해 형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다. 형은 “자기가 그 천리길을 살아 도망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료를 죽였기 때문”이라고(478) ‘나’에게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형과 멀어져있는 상태다. ‘나’가 형에게 다른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나’가 형에게 실망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6·25 이후에 ‘나는 형과의 대상관계를 상실했다. ‘나’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함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가족이 사라진 것이다.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은 ‘나’에게 트라우마를 발생시킨다. 전쟁에서 돌아온 형은 이상해보일 정도로 의료행위에 헌신했다. 그렇기에 살인을 했다는 형의 추종고백을 듣지만 ‘나는 그에 대해 반발심이나 증오심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형이 의료사고로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자 이로 인해 ‘나의 트라우마가 가속화된다.’¹³⁾ 형에게 살인을 진실로

13) 라캉에 의하면 외상적 사건은 주체의 심연에 잠복해 있다가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증상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사후경험에 의한 사후작용이 주체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앞의 글, 18면 참조.) 『병신과 머저리』에서 형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했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을 믿으려 했던 ‘나’에게 형이 실제로 살인을 범했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심증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 ‘나’는 형이 살인자인지 아닌지를 의문시하던 차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형은 의료행위를 중단한 채 6·25 때 폐잔병으로 탈출하며 동료 병사를 죽이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담은 소설을 쓴다. ‘나는 형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후부터 자신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며 헤인과의 연애에도 충실해지지 못하는 곤란을 겪기 시작한다. 본업인 화필 작업에 집중하기는커녕 형이 쓰는 소설에 과도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조차 내버려둔 채 형의 소설을 읽는 일에 매달리는 ‘나’의 모습은 병리적이다.¹⁴⁾ “나의 화폭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넓이로 변하면서 손을 긴장시켜 버린 것은 분명 그 형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478) ‘나’는 회상한다. 게다가 ‘나는 화가이면서도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481) 상태에 빠진다.¹⁵⁾ 살인자일 가능성이 없었던 온순한 일반인으로서의 형

것은 외상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동생은 그림을 그리거나 헤인과 연애를 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의 의료사고는 동생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형이 거지소녀의 발을 밟는 장면이 동생에게 사후경험으로 작용하며 형이 살인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트라우마로 되살아난 것이다. 이러한 사후작용의 결과로 동생은 헤인과의 연애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며 본업인 화필 작업에마저 어려움을 겪는다.

- 14) ‘나의 화필 작업 중단이 예술가로서 창작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신과 인간 간의 관계, 성경의 창세기 등에 관해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 역시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창세기적 아벨의 선개념”(482) 관한 생각이나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에 관한 상념을 끝으로 ‘나의 생각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다. 동생인 아벨이 선한 자로, 형인 카인이 악한 자로 등장하는 성경에 관한 ‘나의 상념은 ‘나가 형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성찰처럼 보이는 성경 인용마저도 실상은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 집착과 관련이 있다.
- 15) 프로이트에 따르면 예술은 욕망의 승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동생은 애도에 실패하며 자신의 욕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욕망의 승화에 해당하는 예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은 이미 상실된 대상이지만, ‘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다.

그 결과 ‘나’는 형에 대해 애증병존의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역시도 ‘나의 우울 증상의 일부에 해당한다. 우선 ‘나는 형의 의료사고에 대해 형의 고의성을 의심하며, 거지소녀의 손을 밟은 일에 대해 형에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다. 이때 ‘나’를 지배하는 것은 형을 향한 적의다. “중요한 것은 형의 칼끝이 그 소녀의 몸에 닿은 후에 소녀의 숨이 끊어진 것”이라는(483) ‘나의 생각에는 형을 향한 적대감이 담겨있다. 그러나 ‘나는 형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술회한다. 형이 “자기의 실수만도 아닌 소녀의 사망사건을 자기것으로 고민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양심을 확인”한다는 ‘나의 생각에는 형에 대한 은폐된 애정이 담겨있다. 6·25 때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나는 혼란스러운 인식을 보인다. 처음에 ‘나는 “형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념 속에서 살인을 되풀이하려”는(489) 것이라며 비난한다. 형의 살인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형의 살인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기존의 견해를 갑작스럽게 수정하며 혼란을 드러내는 등 양가감정을 나타낸다. “형은 언젠가 자기가 동료들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형의 약한 신경은 관모의 행위에 대한 방관을 자기의 살인행위로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를 일”이라는 ‘나의 생각에는 형이 살인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내재한다. 형이 “악질인 척했을 뿐 지극히 비루하고 겁 많은 사람”이라는(490) 것이다. 형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관념 속에서 한 번 더 살인을 되풀이하는 악한이라는 증오심과 악한인 체하는 양심적인 인물이라는 동정심은 서로 다르다. 이렇듯 정돈되지 않은 형을 향한 ‘나의 감정은 “형은 가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미웠다.”라는 서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일시적으로 비애를 느낀 후에 그것을 극복하는 정상인의 심리 과정을 밟지 못한다. 결국 ‘나는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애증 병존의 양가감정을 오가는 병리적인 상태에 빠진다.

‘나는 본연의 임무인 그림 그리기를 등한시하며 형의 이야기에 집착한다. “형이 이야기를 멈추고 있는 동안 나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의 끝이 맺어질 때까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의 곤란을 호소한다. 형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다가 자신의 일상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형은 6·25전쟁 체험에 대한 회고를 담은 자전적 소설을 쓴다. 소설 속의 ‘나는 전쟁 전후에 군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폭력 사건을 회상한다. 서술자는 김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는 오관모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형이 살인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채 집필을 멈추자 ‘나가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병리적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소설의 결말을 구상해야 하는 사람은 형인데도 ‘나는 “나대로 소설의 결말을 얻어 보려고 몇 밤을 세”(480)우기까지 한다. 또한 “형의 소설이 더욱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병리적 상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형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너무나 알고 싶지만 그 사실을 형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나는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병리성을 나타낸다. “현기증이 나도록 넓은 화폭 앞에서 나는 결국 형의 소설만을 생각”하게(490) 된 것이다.

결국 ‘나는 형의 자전적 소설의 결말을 자신이 대신 써버리는 병리적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나가 형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혼돈에 빠져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리성이 더욱 강화되어 멜랑콜리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¹⁶⁾ 형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16) 멜랑콜리의 상태에 빠진 환자들은 대상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그 대상인 것처럼 여기는 병리성을 나타낸다. 고양이가 죽은 후에 고양이처럼 기어다니거나 울음 소리를 내거나 빙의가 되었다며 죽은 이의 흉내를 내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멜랑콜리의 경우에 대상과 자아를 분리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상실된 대상을 자아 속으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대상의 떠남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앞의 글, 52-54면 참고.) 물론 『병신과 머저리』에서 형은 죽지 않았지만, 그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생

사실이 제시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나’는 주인공을 살인자로 만든다. 이러한 ‘나의 행태는 형이 살인자라도 좋으니 차라리 빨리 진실을 아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의 발로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주인공이 살인하는 인물이 가혹한 행위를 일삼던 오관모가 아니라 약자이자 피해자였던 김일병이라는 이야기를 쓴다. 형을 모델로 한 인물이 악한으로 등장하게 만든 것이다. 형은 ‘나’에게 자신이 죽인 인물이 김일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형이 김일병을 살해하는 이야기를 쓴다.

나는 화풀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표범 토끼잡듯 김일병을 잡았다. 김일병의 살해법이 누구인지 확실치도 않은 것을 ‘나’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내’(여기서는 형이라고 해야 좋겠다)가 관모가 오기 전에 김일병을 끌고 동굴을 나와서 쏘아 버리는 것으로 일단 끝을 맺었다.(490)

이렇듯 형의 살인사건을 임의적으로 추측하고 형이 쓰는 소설의 결말을 구상해 자신이 써버리는 행동은 병리적이다. ‘나’는 임의적으로 형의 자전적 소설의 결말을 쓸 뿐만 아니라 약자를 살해하는 가해자로 형을 묘사한다. 프로이트가 우울증 환자의 자기 비하가 실제로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비난을 함축한다고 논의했던 점을 상기할 때,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동생의 증상은 우울증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준다. 형의 소설을 대신 쓰는 ‘나의 상태는 프로이트가 말했던 자아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즘의 단계로 퇴행한 멜랑콜리에 해당한다.¹⁷⁾ ‘나’는 김

에게는 상실된 대상으로 여겨진다. 프로이트 역시 우울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상적 대상’의 상실을 꼽는다. (프로이트, 앞의 글, 246면.)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자에 비해 폭력을 꺼리는 사람이 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대상’에 가까울 것이다.

17) 프로이트에 의하면 멜랑콜리는 분명히 상실된 대상을 가진다. 자아가 대상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병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다. 반면에 라캉은 멜랑콜리의 원인을 대상으로 지칭하며 주체 구성의 원리로 파악한다. 상징계적 질서에 진입하기 위한 입사의 과정에서 멜랑콜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맹정현, 『멜랑콜리의 모호한 대상』, 『현대정신분석』 13(2), 한국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1, 79면.) 이러한 라캉의 논의는 인간의 자기형성과 관련해 시사점을

일병을 죽게 만듦으로써 자신을 “가해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려 한다.¹⁸⁾ 그러나 ‘나’는 가해자를 자처함으로써 사실상 형의 가해 행위를 폭로한다. 그러므로 ‘나’가 구상한 서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신을 가해자로 정위한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데에만 있지 않다. ‘나의 심층적인 목적은 형이 가해자일 경우를 가정해 그를 비난하고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형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질문함으로써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확인 없이 형을 살인자로 단정한다. 멜랑콜리 상태에 빠져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이다. 멜랑콜리에 빠진 ‘나는 형을 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잃어버린 대상관계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는 심리적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우울 상태에 빠진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가 우울증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을 상실한 이후에 애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슬픔의 원인을 의식적으로 자각한다. 그러나 우울증자들은 자신이 상실한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며, 설령 그 대상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의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동생의 경우에 형에 대해 애증 병존의 양가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통해 그가 상실한 대상이 형이라고 추정할 수

주지만, 상실된 대상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자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시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대상 상실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인간의 일반적인 자기형성의 과정으로 그 상황을 당연히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병신과 머저리』의 동생이 겪는 ‘환부 없는 고통’은 상징계적 입사의 과정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동생이 겪는 고통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탐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나의 환부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병리성을 해결할 실마리 역시 얻지 못하게 한다. 병리성을 겪는 자아에게 상실된 대상은 은폐된다. 이렇듯 상실된 대상이 은폐된 원인을 탐색해야 멜랑콜리 증상을 치유할 수 있다.

- 18) 『병신과 머저리』에서 동생이 스스로를 가해자의 위치에 정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실제로 그가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과 달리 동생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두어 윤리적, 도덕적 우위를 점할 필요가 없다. 형이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두고자 고집하는 것은 가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 위한 심리적 조작에 해당한다. (서영채, 앞의 글, 417-418면.)

있다. 동생이 형의 소설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 심지어 자신이 형의 소설을 대신 쓰려고까지 한다는 점에서 동생의 리비도가 집중된 대상은 형이다. 그런데 동생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형의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이 동생의 우울 증상의 근원이지만, 동생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나가 형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는 점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울 증상이다.

형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점은 소설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거지소녀의 발을 일부러 밟은 것 같다는 '나의 말에 대해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일부러 밟은 것이라면 '나의 말을 듣고 반성의 말을 해야 하고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라면 '나의 말이 틀렸고 오해라는 변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형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료행위를 그만두고 소설 집필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가 형의 소설에 가필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그는 '나에게 형으로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다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화실로 '나를 찾아온 형은 욕설을 내뱉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현실에서 오관모를 만난 이후에 형은 자신이 쓴 소설을 찢고 불태워버린다. 이러한 형의 행동은 소설을 읽는 행동을 통해 유일하게 표명되었던 동생의 관심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할 뿐 동생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형의 행태들은 '나와 형이 소통 불가능한 상태이며 '나가 형과의 대상관계를 상실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나는 형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정체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에 놓인다. '나는 헤인에게 연정을 느끼면서도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 헤인은 형의 친구가 소개해준 여성이다. 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열망을 깨닫지 못한 채 헤인을 멀리한다.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은 근원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나의 상처다. 형을 살인자

라고 의심하면서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나’는 우울 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 결과 동생은 다른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실연 이후에 ‘나’는 혜인의 편지를 다시 읽는 등의 미련을 나타내지만 정작 그녀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견디는 것이 더 쉽다”(478) 말하며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도 한다. 게다가 ‘나’는 자신과 연애하던 때에 혜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화조차 내지 않는다. 사실상 혜인의 외도로 인해 실연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에 ‘나’는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기만 하는 것이다. “화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479) 말하는 ‘나’의 반응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병리적 증상의 일부이다. 연애의 기쁨보다 이별의 슬픔이 더 쉽다는 ‘나’의 말은 정상인의 심리 상태를 따른 것이 아니다. 또한 연인의 외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것 역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멜랑콜리에 빠진 ‘나’는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대상관계를 위해 리비도를 투여하고 그 리비도 투여가 다른 대상으로 전위되어야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혜인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다른 대상으로 전위시키지 못한다. 실연을 받아들이고 혜인의 결혼을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그녀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그녀의 외도를 비난하지도 못한 채 그녀에 대한 상념에 포획된다.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로 인해 멜랑콜리에 빠진 ‘나’는 혜인과의 관계에도 실패한다.

이렇듯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나’의 증상은 프로이트가 『슬픔과 우울증』에서 제시했던 우울증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슬픔의 정상적인 감정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는 경우와 다르게 ‘나’는 일상의 질서로 복귀하지 못하는 우울증자의 징후를 나타낸다. 이 소설에서 의료사고 이후에 형이 거지소녀의 발을 밟은 것은 사후경험으로 작용해 ‘나’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다. 정상적인 애도에 실패한 ‘나’는 형에 대해 양가감정을 나타내는 등 병리성을 나타내고, 결국 나르시시즘적으로 퇴행한 멜랑

콜리 상태에 빠진다.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나’의 우울증은 6·25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관계를 상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6·25는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그 사상자를 다치거나 죽게 만든 가해자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옆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상관계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나’는 형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로 말미암아 형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점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다. 오히려 형이 오관모를 만난 이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형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기도 한다. 자신보다 형이 더 고통스럽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 고통 받는 형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아픔을 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인식이 비단 그 자신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헤인과 같은 주변 사람의 ‘나’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헤인은 편지에서 ‘나’의 형이 6·25전상자로 불린다는 점과 ‘나’가 형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의 자기인식이 왜곡되는 데에 헤인의 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병신과 머저리』에서 ‘나’는 헤인으로 부터 형보다도 더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형에게는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동생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헤인의 말은 6·25 참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정말로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6·25의 전상이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선생님의 형님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앓고 있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어찌면 처음부터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환자일까요. 더욱이 그 증상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그 환부가 어디에 위치한지, 그것이 무슨 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병은 더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의 형님은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근원했건 자기를 주장해 왔고 자기의 여자를 위해서 뭔가 싸워 왔어요.(492)

인용된 바와 같이 혜인은 ‘나’에게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6·25전상자인 형이 ‘나’에 비해 더 나은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판단한다. 사랑하는 여성으로부터 고통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은 들은 상황에서 동생은 자신이 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동생은 자신의 환부의 원인이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환부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는 우울 증상의 발현이다.

‘나’는 형과의 대상관계를 상실했지만 그 상실을 충분히 애도할 수 없었다. 스스로를 고통 받는 존재로 표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으로부터 고통 받을 만한 자로 여겨지지 않았던 탓에 ‘나’는 대상관계 상실로 고통 받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억압하도록 사회로부터 요구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이 누구의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우울 증상에 빠져들게 되었다. 사실상 ‘나’의 우울 증상의 원인은 형과의 대상관계 상실과 그 상실된 관계에 대한 애도의 실패다. 그 결과 ‘나’는 연애에도 일에도 일상을 영위하는 것에도 실패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나’의 자기 인식은 혜인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인식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다. 혜인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나’의 자기 인식에 비판 없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헤인의 말처럼 형은 6·25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헤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499)

이렇듯 ‘나’가 스스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된 원인은 헤인의 ‘나’에 대한 평가에 있다. 6·25에 참전한 사람이 아닌 ‘나’에게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6·25 참전자가 아니지만 형이 살인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설령 살인자가 아니라 해도 전쟁 이후의 형은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림을 찢는 등 다소 폭력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형의 행동들을 제지하는 인물은 없다. 욕설을 듣고 화폭이 찢긴 후에 방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오히려 형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나’는 “몸 전체가 깨지는 듯한 아픔”(498) 느낀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에게는 “무서운 창조력”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여긴다. 이렇듯 ‘나’로 하여금 창작과 연애와 일상과 자신으로 살기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은 헤인을 비롯한 세간의 ‘나’에 대한 평가에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화자인 ‘나’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진실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에게 아무런 “환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4. 가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에 대한 증언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는 이른바 국가 영웅적 위훈을 세웠다는 자들에게 ‘공화국영웅’이라는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¹⁹⁾ ‘휴전’이 아니라 ‘전승’

개념을 고집하며 전쟁기억을 미화하는 작업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진행 중이다.²⁰⁾ 남한의 경우에도 그와 다르지 않게 6·25 참전자를 영웅화하는 사업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2년 육군 군사연구소에서는 전쟁 유공추모대상자 선정 사업의 일환으로 56명의 전쟁영웅을 선정했다.²¹⁾ 그 이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관 하에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 전쟁 영웅』이²²⁾ 발간되기도 했다. 6·25 발발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2011년 6월에 시작된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사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²³⁾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달 6·25전쟁영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²⁴⁾ 이청준이 등단했던 1960년대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참전자들을 상찬하며 영웅화하는 분위기는 오늘날보다도 당연시되었을 것이다. 참전자들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영웅들”이라²⁵⁾ 지칭되었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규모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다. 6·25 당시 참전했던 미국인들에 대한 훈장 수여 역시 빈번하게 진행되었다.²⁶⁾ 심지어 직접 참

-
- 19) 김종수, 『6·25전쟁과 북한 ‘청년영웅’』, 『한국학』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62, 173면 참조. 그 결과 북한에서 549명의 공화국 영웅이 탄생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전쟁발발일과 휴전협정 체결일에 이를 기념하는 대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 유임하, 「전승 60주년과 북한문학의 표정—『조선문학』(2013.7) 소재 소설에 나타난 전쟁기억의 양상」, 『돈암어문학』 26, 돈암어문학회, 2013, 31면.
- 21) 군사연구소, 『한국의 전쟁영웅들』, 육군인쇄창, 1992.
- 22) 손규석,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군사편찬연구소, 2003.
- 23) 김광규, 『6·25전쟁 수업에서 ‘전쟁영웅’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사회과교육연구』 26(2), 한국사회교육과교육학, 2019, 22면.
- 24) 국가보훈처에서 2020년 8월에 ‘6·25전쟁영웅’으로 “지리산함 57용사”가 선정되는 등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pva.go.kr/mpva/news/reportView.do?id=46221¬ice=N> 최종접속: 2020.09.15.)
- 25) 6·25에 참전했던 당시 미국의 상하의원과 벤프리트, 리치웨이 등 14명에게 일등근무공로훈장이 수여됐다. (『참전 16개국 전몰장병 추념식도 엄수 유엔군 묘지서』, 『경향신문』, 1961.10.24. 참고) 또한 1959년 9월 6일과 8일 낙동강전투에 참가한 존 M.머피 하원의원 역시 무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6·25참전용사와 한국과 인연 있는 미의원들』, 『동아일보』, 1963.12.13.)
- 26) 『내외 인사 만이천여—민정이양 날 포상』, 『동아일보』, 1963.12.11.

전하지도 않았던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유엔에서 미군 참전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건국훈장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²⁷⁾ 6·25전쟁 참전은 애국심의 발로로 여겨졌고 참전자들의 위상은 높았다. 인천상륙작전을 진행한 맥아더에 관한 우상화 작업은 6·25 참전자를 영웅화하는 작업의 극단을 드러내는 사례였다. 미국에서는 정작 맥아더의 전략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국내에서 그는 구국의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했다.²⁸⁾ 전쟁 당시에 사망한 인민군들의 대다수는 북한의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38선 건너 남한이나 파병한 미국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²⁹⁾ 사망자들 중에 북한 인민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계산되지 않았다. 참전자들을 영웅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도 살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표현될 수 없었다. 참전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담론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1960년에 시작된 베트남전쟁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치유되기도 전에 한국사회를 군사화했고 그 병증이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1960년에 베트남전쟁이 발발하며 한국사회에서 전쟁은 새롭게 의미화되기 시작했다.³⁰⁾ 참전자를 영웅화하는 분위기 역시 베트남전쟁 파병 결정 이후 강화되었다. 『병신과 머저리』는 베트남전쟁이 종결된 1973년까지 연 32만 명 규모

27) 『건국 공로훈장 트루먼씨에 수여 6·25맞아』, 『동아일보』, 1964.6.13.

28) 맥아더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는 미국에서 1964년 그의 회고록, *Reminiscences*가 출간되며 가속화되었다. 국내에서는 1971년에 이 회고록을 전문 번역한 『대회고록』이 출간되며 맥아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맥아더 관련 서적들은 이후로 꾸준히 출간되었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부재했다. 그의 영웅성이 부각되거나 겸손함이 강조되는 등 찬양이 주를 이루었다. (김남혁, 『번역과 다시 쓰기로 만들어진 더글라스 맥아더의 영웅상—맥아더의 『대회고록』과 그를 소재로 한 위인전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391-394면.)

29) 『영웅의 심장 오늘도 뛴다』, 『로동신문』, 2005.12.8. (김종수, 앞의 글, 183면 재인용.)

30) 윤충로, 『베트남전쟁 참전의 안과 밖』, 오제원 외 8명,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60년대—근대화 와 근대화』, 창비, 2016, 165-190면 참조.

의 전투군을 파병하기 시작했던 1965년, 바로 그 이듬해에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1966년에 다시 읽는 한국전쟁 이야기는 베트남파병 결정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병영사회 건설과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영웅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전쟁 시기의 참전자들은 다시금 영웅으로 소환되었다. 한국전쟁의 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에 매진하는 ‘형’에 대한 사회적 존중 속에 은폐된 것은 약자를 살해하고 참회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다. 1964년 9월에 시작된 베트남 파병이 결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로 귀결된 것은 이 전쟁에서 한국군이 철저하게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960년대의 군사주의 문화는 가장 약한 자에 대한 가해를 팔호에 넣은 이후에만 성립할 수 있었다. 1966년에 한국사회에서 전쟁 트라우마는 종결형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 단계에 있었다. 『병신과 머저리』는 가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을 겪는 ‘나’의 서사를 통해 1960년대 중반에 극심해진 군사주의 문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6.25전쟁 참전자를 격상시키는 행태는 문단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군 중군작가단에 의해 구성된 『전선문학』은 창간사에서부터 “무기로서의 문학”³¹⁾을 주창했다. 전쟁이 야기한 폭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보다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는 비평 논리들이 문학 담론장에 득세했다.³²⁾ 동족에 대한 살육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비판 받지 않고 승전을

31) 임궁재, 『전시하의 한국문학자의 임무』, 『전선문학』 1, 1952.4.9.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회, 2008, 201면 재인용)

32) “잘 싸웠다는 의미와 또 앞으로 잘 싸워달라는 의미, 그리고 이 위대한 애국정신이 우리 청소년들의 뺨속까지 침투되기를 비는 의미.”라는(이무영, 『바다와의 대화』, 『전선문학』 3, 1953.2.) 이무영의 『바다와의 대화』의 한 구절은 전쟁 논리를 전파했다. (위의 글, 214면 재인용.) “모든 도덕 의리 윤리 질서를 묶어 평화라고 일컫는다면, 우리들은 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위하여 무기를 드는 투쟁이 필요한지도 몰랐다”고(박연희, 『무기와 인간』, 『전선문학』 6, 1953.5, 23면.) 말한 박연희의 『무기와 인간』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위의 글, 218면 재인용.)

위한 프로파간다로 활용되었다. 무기화된 문학들은 대중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며 슬픔의 감정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³³⁾ 그러나 누군가를 살해한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인 사람들에게 비애는 제거되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가까운 이의 타락을 목격한 자들에게 슬픔의 표현조차 억압되는 상황은 병리적인 것이었다. 바로 옆 자리의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고통스러워할 수 없고 도리어 그를 칭송해야 하는 상황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예술은 고통 받는 이들의 소통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전쟁 논리가 득세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도구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팔봉, 최상덕, 구상, 박영준과 같은 종군작가들이 화랑훈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도 있었다.³⁴⁾ 종군작가를 칭송하는 분위기는 당연시되었고 참전자를 영웅화하는 프로파간다 문학이 성행했다.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선우휘의 『불꽃』은 1960년에 백철과 이어령에 의해 간행된 『한국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되며 정전화되었다.³⁵⁾ 전쟁 참전자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거나 다른 각도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억압당하던 시대에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발표되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자나 가해자로, 최소한 타락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참전자가 영웅화되고 숭배 받는 상황에서 타락자의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은 표현될 수 없었다. 전쟁 참전자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되는 영웅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타락자의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가, 혹은 지인이 전시에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

33) 정명중, 『『전선문학』에 나타난 슬픔의 배제와 증폭』,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문학회, 2012, 119면.

34) 김기진, 최상덕, 구상, 박영준은 6·25전쟁에 종군했다는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종군작가 4명에 화랑훈장을 수여』, 『경향신문』, 1964.2.21.)

35) 이행미, 『1960년대 『한국전쟁문학전집』 발간과 정전화 기획』, 『한국어와 문화』 24,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8, 133면.

들이는 일은 당연하지 않다. 『병신과 머저리』의 ‘나’에게 전쟁 이전의 형은 살인자가 아니었다. 6·25전쟁의 사상자는 민간인의 경우에만 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상자가 이렇다면 그만한 숫자의 사람을 살해한 자 역시 그 수효에 근접할 것이다. 전쟁은 그저 폭력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옆 사람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을 만들어 낸 사건이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가족이, 친구가, 혹은 지인이, 또는 바로 옆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는 없다. 무공을 세웠다면 그를 칭송하는 분위기에 합류할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의미의 가해일 수 있다. 전쟁 이후에 타락해버린 자의 옆에서 그를 칭송해야 할 때 그러한 상황은 고통을 야기한다.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전쟁이 야기한 고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6·25전쟁은 나의 가족이 동족을 살해한 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전쟁이 정당화되고 참전자가 영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고통을 표현하지 못한 채 우울증에 걸리는 일은 전쟁이 발발한 지역에서라면 비교적 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일 대신에 전쟁 참전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를 받으며 멜랑콜리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이다. 전쟁은 살인 행위에 대한 강제된 동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가한다. 『병신과 머저리』에 재현된 ‘나’의 고통은 타락을 만들어내는 전쟁의 폭력을 보편적인 형태로 드러낸다. 그리고 참전자 영웅화로 인해 동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억압당한 자들의 트라우마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특수한 정신적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해자 혹은 타락자의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부를 찾지 못하도록 강제된다. ‘환부 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의 표현과 탐색을 억압당한 자들의 멜랑콜리가 있을 뿐이다.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

난 ‘나’의 “환부”는 가해자 혹은 타락자를 칭송하며 살도록 강요받는 상황 그 자체에 있다. 그것은 6·25전쟁이 참전하지 않은 한반도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해한 상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창작과 비평』 1966년 가을호(제1권 제4호), 문우출판사, 1966.10.
선우휘, 『불꽃』, 『오늘의 작가 총서21—불꽃』, 민음사, 1996.
『경향신문』, 『노동신문』, 『동아일보』, 『창작과 비평』

2. 단행본

- 군사연구실, 『한국의 전쟁영웅들』, 육군인쇄창, 1992.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김종주, 『이청준과 라깡』, 인간사랑, 2011.
손규석,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군사편찬연구소, 2003.
오제연 외 8명,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60년대—근대화와 근대화』, 창비, 2016.
이승준, 『이청준 소설 연구—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파워북, 2013.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전집11—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3.

3. 논문

- 김광규, 『6·25전쟁 수업에서 ‘전쟁영웅’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사회과교육연구』 26(2), 한국사회교과교육학, 2019, 21-39면.
김남혁, 『번역과 다시 쓰기로 만들어진 더글라스 맥아더의 영웅상—맥아더의 『대회고록』과 그를 소재로 한 위인전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355-401면.
김병익, 『6·25사면, 한국전쟁, 분단체제, 그리고…—그 역사에 대한 우리 소설의 관점들』, 『본질과 현상』 37, 본질과 현상사, 2014, 194-208면.
김중수, 『6·25전쟁과 북한 ‘청년영웅』, 『한국학』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61-188면.
김효은, 『경계 세계에 놓인 불안한 존재들의 환부의 의미—이청준의 『퇴원』, 『병신과 머저리』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12(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101-127면.

- 맹정현, 『멜랑콜리의 모호한 대상』, 『현대정신분석』 13(2), 한국라강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1, 79-96면.
- 박인성, 『이청준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남성 동성사회성 연구—소거된 여성 젠더를 둘러싼 비대칭적 삼각형을 통하여』, 『현대소설연구』 7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5-38면.
-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회, 2008, 193-231면.
- 서영채, 『가해자의 자리를 향한 열망과 죄책감—『병신과 머저리』가 한국전쟁을 재현하는 방식』,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417-452면.
- 이상우, 『죄의식의 표출과 예술가의 고통—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하여』, 『국제어문』 10, 국제어문학회, 1989, 139-154면.
- 이행미, 『1960년대 『한국전쟁문학전집』 발간과 정전화 기획』, 『한국어와 문화』 24,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8, 121-152면.
- 조구호, 『이청준 소설 연구—전쟁의 상처와 분단극복을 중심으로』, 『東洋學』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63-78면.
- 정명중, 『『전선문학』에 나타난 슬픔의 배제와 증폭』,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문학회, 2012, 393-423면.
- 현순영,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대중적 해석 검토』, 『한국언어문학』 105, 한국언어문학회, 2018, 147-174면.

4. 디지털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news/reportView.do?id=46221¬ice=N>
 최종접속: 2020.09.15.)

<Abstract>

The suffering of the people who live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or the corruptor
—A study of Yi Cheong-Joon's novel *A Fool and a Stupid*

Seon, Min-Seo

Freud said that not only the subject's death, but also the subject's depravity, results in object loss. Many of the Korean War veterans killed someone, and many people lived alongside the corruptor, losing him before the corruption. Polarized literature can also be read as a narrative of a past loss of object. Yi Cheong-Joon's *A Fool and a Stupid* is the story of a younger brother who has transformed into a corrupt brother who may have been involved in murder. In his brother's pathological pain, the universal form of pain caused by the Korean War and division is revealed. This is because all wars are a possibility to make a close acquaintance a corrupter.

In *A Fool and a Stupid*, 'I' suffers from his brother's corruption. When he hears that his older brother, who had a meek personality, became a murderer, 'I' began to suffer from depression. Without letting the lost elder brother away from his heart, he feels the ambivalence of love and hatred toward his elder brother, suffers a setback in daily life, and makes abnormal behaviors. 'I' said that there was no disease in his pain, but there was an obvious reason for the pain of 'I'. However, Hye-In compares 'I' with his brother, who was in the Korean War, and says that 'I' have no reason for pain.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discourse of the

time that made the Korean War veterans a hero and concealed their testimony about their corruption.

At the root of the melancholy of 'I', there was a social discourse that regarded the veterans as heroic without recognizing them as corruptors. The atmosphere of heroizing veterans accelerated after the dispatch of the Vietnam War in 1964. Published in 1966, *A Fool and a Stupid* was born in the mid-1960s militarism. The suffering of those who had to live with countless corrupters is manifested by signs and symptoms. The trauma of war existed not only for the veterans but also for those who had to tolerate their corruption. Being wary of the heroization of veterans caused by militarism, Yi Cheong-Joon's *A Fool and a Stupid* visualized the suffering of those who had to live with the veterans.

Key words: Yi Cheong-Joon, *A Fool and a Stupid*, *Trauer und Melancholie*, War trauma, the Korean war, heroization of veteran, militarism, Polarized Literature

투 고 일 : 2020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